

## 초등학생의 상담 실태와 상담요구 및 고민문제 탐색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김영태<sup>1\*</sup>  
<sup>1</sup>원광대학교 교육학과

### A Study on Elementary Students' Counseling Services and Needs for Counseling & Their Troubles -the case of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Young-Tae Kim<sup>1\*</sup>

<sup>1</sup>Dep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의 상담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에 대한 요구와 고민의 정도를 분석하여 초등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생 47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학생들은 상담안내, 상담경험 및 상담교사와 상담실이 부족하며, 담임교사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이 끝난 후를 이용해 개인 상담을 원하며, 자신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여자 상담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들은 고민의 정도가 6학년 여학생, 형제가 있는 학생, 아버지만 계시는 학생, 하위권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생의 고민문제의 각 영역들 간에 정적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교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적·제도적인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unseling services in elementary school, to analyze counseling needs and the degree of distress or worry, and to provide desirable for counseling.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as a research tool was used for the respondents, 476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eollabukd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hortage of counseling or its guidance, an experienced counselor, and room for the students. Most of the counseling was taken place only when home room teacher thinks counseling is needed. Second, the students wanted a counselor to listen and understand their problems, preferred women teacher as a counselor, and needed personal advice after class. Third, the degree of worry was higher on female students with siblings, single father, Grade 6, and the low scores. Fourth, each area of worry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t is needed to reexamine the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contents and develop a variety of counseling program in order to put the counseling in the elementary school to practical use.

**Key Words** : Elementary Student, Counseling Services, Needs for Counseling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식정보화를 향해 나아가며 살아

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변화속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1]. 이러한 현실속에서 아동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2], 학교는 극심한 경쟁사회에 적응하

\*교신저자 : 김영태(kytkyt@wku.ac.kr)

접수일 11년 08월 02일

수정일 11년 08월 30일

게재확정일 11년 09월 08일

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 획득을 강조하는 교육이 중심이 되고, 기본 생활습관, 도덕성의 함양,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갈등해결방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은 결여되어 있다[3].

아동들에게 학교라는 곳은 가정 못지않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상담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이전의 아동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잡한 사회에서 독립된 개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전인적 인간으로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4].

따라서 초등학교 상담은 중등학교 상담과는 다른 차원에서, 아동기 발달의 기초성, 형성성 및 전인성 등의 특성에 따라 발달적 상황을 조장하기 위한 교육적 경험의 제공이 그 중요한 목표이다[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는 상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상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담임교사들은 상담의 전문성 부족과 수업시수 및 업무과다로 인한 상담시간 부족 등으로 상담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6-12].

또한, 학생 및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올바른 정체감을 형성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며, 학생 및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도 및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상담활동이 필요하다[1].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활동의 실태와 상담요구 및 고민이나 걱정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학교상담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가 지각한 고민정도에 따른 학교상담 현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초등학교가 지각한 고민정도에 따른 학교상담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초등학교가 지각한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에 따라 관련 변인별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초등학교가 지각한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생 476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5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에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구하고, 조사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489명 중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기재사항이 미비한 13부를 제외한 476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형제유무별, 부모관계별, 성적수준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현황**  
**[Table 1] Sample component**

|      | 구 분        | 응답자수 | 비율(%) |
|------|------------|------|-------|
| 성별   | 남          | 246  | 51.7  |
|      | 여          | 230  | 48.3  |
| 학년별  | 5학년        | 222  | 46.6  |
|      | 6학년        | 254  | 53.4  |
| 형제유무 | 있다         | 426  | 89.5  |
|      | 없다         | 50   | 10.5  |
| 부모관계 | 부모님 모두 계신다 | 445  | 93.5  |
|      | 아버지만 계신다   | 17   | 3.6   |
|      | 어머니만 계신다   | 14   | 2.9   |
| 성적수준 | 상위권        | 148  | 31.1  |
|      | 중위권        | 282  | 59.2  |
|      | 하위권        | 46   | 9.7   |
| 전체   |            | 476  | 100   |

###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조영숙(1999), 이학수(2001), 이은주(2004), 김민아(2004), 이기화(2005), 권기남(2005), 조성미(2005)가 제작한 내용과 방법을 참고 [4,7,13-17]하고, 초등학교의 고민에 관한 설문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문제 유형분류 체계표(김진숙·강진구, 2000)을 참고[18]하여 초등학교에 맞지 않는 성문제나 비행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여 정미연(2006)이 제작한 설문지[19]이며, Cronbach's  $\alpha$  .99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미연(2006) 설문지[19]를 연구목적에 맞게 초등학교 교사2인과 교육학박사 2인에게 의뢰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수는 학교상담 현황 7문항, 학교상담에 대

한 요구 11문항, 고민이나 걱정에 대한 내용 40문항(가족 9문항, 학업과 학교부적응 9문항, 대인관계 9문항, 성격 문제 9문항, 생활습관태도 4문항) 구성하였으며, 고민이나 걱정에 대한 문항은 4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 이었으며, 가족문제 .73, 학업과 학교부적응 문제 .77, 대인관계 문제 .77, 성격문제 .85, 생활습관태도 문제는 .53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학교상담 현황과 학교 상담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집단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chi^2$  검정을 하였다. 변인별(성별, 학년별, 형제별, 부모관계별, 성적 수준별)의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검증을 하였으며, 고민이나 걱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 3. 연구결과 및 해석

#### 3.1 초등학생이 지각한 고민정도에 따른 학교 상담 현황

초등학생이 지각한 고민정도에 따른 학교 상담 현황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상담 안내를 받은 학생보다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78.9%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상담안내를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경험이 없는 학생이 74.7%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상담경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상담을 하게 된 동기에서는 ‘선생님 부르셔서’가 67.0%로 가장 높았으며, 상담내용으로는 ‘나쁜 행동’으로, 상담의 도움정도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선생님의 유무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74.9%, 상담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7.9%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상담선생님의 존재여부와 상담실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민정도에 따른 학교상담으로는 상담경험여부, 상담내용, 상담선생님유무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고민정도에 따른 학교상담 현황

[Table 2] Degree of distress about school counseling

| 구 분             | 전체<br>N(%) | 고민정도      |           | $\chi^2$ (df) | p             |      |
|-----------------|------------|-----------|-----------|---------------|---------------|------|
|                 |            | 상         | 하         |               |               |      |
| 상담<br>안내<br>경험  | 있다         | 67(21.1)  | 35(22.9)  | 32(19.5)      | .537<br>(1)   | .464 |
|                 | 없다         | 250(78.9) | 118(77.1) | 132(80.5)     |               |      |
|                 | 계          | 317(100)  | 153(100)  | 164(100)      |               |      |
| 상담<br>경험<br>여부  | 있다         | 80(25.3)  | 60(39.0)  | 20(12.3)      | 29.579<br>(1) | .000 |
|                 | 없다         | 236(74.7) | 94(61.0)  | 142(87.7)     |               |      |
|                 | 계          | 316(100)  | 154(100)  | 162(100)      |               |      |
| 상담<br>동기        | 내가 스스로     | 11(12.1)  | 7(10.3)   | 4(17.4)       | 6.251<br>(4)  | .181 |
|                 | 선생님이부르셔서   | 61(67.0)  | 50(73.5)  | 11(47.8)      |               |      |
|                 | 부모님 부탁으로   | 1(1.1)    | 1(1.5)    | -             |               |      |
|                 | 선생님께 말해서   | 9(9.9)    | 5(7.4)    | 4(17.4)       |               |      |
|                 | 기타         | 9(9.9)    | 5(7.4)    | 4(17.4)       |               |      |
| 상담<br>내용        | 계          | 91(100)   | 68(100)   | 23(100)       | 20.268<br>(7) | .005 |
|                 | 가족         | 19(21.6)  | 16(24.6)  | 3(13.0)       |               |      |
|                 | 나쁜 행동      | 34(38.6)  | 25(38.5)  | 9(39.1)       |               |      |
|                 | 학교 성적      | 16(18.2)  | 14(21.5)  | 2(8.7)        |               |      |
|                 | 진로         | 3(3.4)    | -         | 3(13.0)       |               |      |
|                 | 이성         | 1(1.1)    | -         | 1(4.3)        |               |      |
|                 | 친구(대인관계)   | 11(12.5)  | 8(12.3)   | 3(13.0)       |               |      |
|                 | 성격         | 2(2.3)    | -         | 2(8.7)        |               |      |
|                 | 생활습관(태도)   | 2(2.3)    | 2(3.1)    | -             |               |      |
|                 | 계          | 88(100)   | 65(100)   | 23(100)       |               |      |
| 상담<br>도움<br>정도  | 많이 도움      | 42(47.2)  | 30(46.2)  | 12(50.0)      | 4.616<br>(4)  | .329 |
|                 | 약간 도움      | 25(28.1)  | 21(32.3)  | 4(16.7)       |               |      |
|                 | 모르겠다       | 16(18.0)  | 9(13.8)   | 7(29.2)       |               |      |
|                 | 별로 도움안됨    | 2(2.2)    | 2(3.1)    | -             |               |      |
|                 | 전혀 도움안됨    | 4(4.5)    | 3(4.6)    | 1(4.2)        |               |      |
|                 | 계          | 89(100)   | 65(100)   | 24(100)       |               |      |
| 상담<br>선생님<br>유무 | 계신다        | 10(3.2)   | 10(6.5)   | -             | 12.685<br>(2) | .002 |
|                 | 안계신다       | 69(21.9)  | 38(24.5)  | 31(19.4)      |               |      |
|                 | 모르겠다       | 236(74.9) | 107(69.0) | 129(80.6)     |               |      |
|                 | 계          | 315(100)  | 155(100)  | 160(100)      |               |      |
| 상담실<br>설치<br>유무 | 있다         | 25(7.9)   | 10(6.6)   | 15(9.2)       | 5.625<br>(2)  | .060 |
|                 | 없다         | 132(41.9) | 74(48.7)  | 58(35.6)      |               |      |
|                 | 모르겠다       | 158(50.2) | 68(44.7)  | 90(55.2)      |               |      |
|                 | 계          | 315(100)  | 152(100)  | 163(100)      |               |      |

#### 3.2 초등학생이 지각한 고민정도에 따른 학교 상담에 대한 요구

표 3과 같이, 학교 상담에 관한 학생의 요구에서 가장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부모’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학교선생님’이며, 상담자를 선택한 이유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고민을 잘 이해해 주셔서’가 높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과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혼자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잠을 자거나’, ‘마음속으로 혼자 참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인 해결방법으로 찾지 못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상담을 원하는 선생님은 ‘전문상담선생님’보다는 ‘담임선생님’을 선호했으며, 성별로는 ‘여자’를,

상담시간은 ‘수업이 끝난 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고민정도에 따른 학교상담에 대한 요구  
[Table 3] Degree of distress about needs for Counselling

| 구 분                 | 전체<br>N(%) | 고민정도      |           | χ <sup>2</sup> (df) | p             |      |
|---------------------|------------|-----------|-----------|---------------------|---------------|------|
|                     |            | 상         | 하         |                     |               |      |
| 가장<br>상담하고<br>싶은사람  | 부모         | 138(43.8) | 39(25.8)  | 99(60.4)            | 53.031<br>(5) | .000 |
|                     | 친구         | 74(23.5)  | 58(38.4)  | 16(9.8)             |               |      |
|                     | 학교선생님      | 28(8.9)   | 17(11.3)  | 11(6.7)             |               |      |
|                     | 형제         | 20(6.3)   | 7(4.6)    | 13(7.9)             |               |      |
|                     | 전문상담선생님    | 15(4.8)   | 8(5.3)    | 7(4.3)              |               |      |
|                     | 혼자해결       | 40(12.7)  | 22(14.6)  | 18(11.0)            |               |      |
| 계                   | 315(100)   | 151(100)  | 164(100)  |                     |               |      |
| 상담자<br>선택이유         | 고민이해       | 88(28.8)  | 33(21.6)  | 55(35.9)            | 10.482<br>(4) | .033 |
|                     | 편하게 이야기    | 121(39.5) | 61(39.9)  | 60(39.2)            |               |      |
|                     | 비밀보장       | 42(13.7)  | 27(17.6)  | 15(9.8)             |               |      |
|                     | 쉬운 만남      | 11(3.6)   | 6(3.9)    | 5(3.3)              |               |      |
|                     | 계          | 306(100)  | 153(100)  | 153(100)            |               |      |
| 혼자고민<br>해결          | 잠을잔다       | 72(36.2)  | 42(38.9)  | 30(33.0)            | 13.125<br>(6) | .041 |
|                     | 화를낸다       | 26(13.1)  | 10(9.3)   | 16(17.6)            |               |      |
|                     | 잡는다        | 66(33.2)  | 43(39.8)  | 23(25.3)            |               |      |
|                     | 오락실(PC방)   | 5(2.5)    | 3(2.8)    | 2(2.2)              |               |      |
|                     | 책을읽는다      | 3(1.5)    | -         | 3(3.3)              |               |      |
|                     | 운동(취미생활)   | 22(11.1)  | 8(7.4)    | 14(15.4)            |               |      |
|                     | 기타         | 5(2.5)    | 2(1.9)    | 3(3.3)              |               |      |
|                     | 계          | 199(100)  | 108(100)  | 91(100)             |               |      |
| 선생님과<br>상담할<br>생각여부 | 있다         | 120(37.7) | 58(37.7)  | 62(37.8)            | 11.877<br>(2) | .003 |
|                     | 없다         | 184(57.9) | 83(53.9)  | 101(61.6)           |               |      |
|                     | 기타         | 14(4.4)   | 13(8.4)   | 1(0.6)              |               |      |
|                     | 계          | 318(100)  | 154(100)  | 164(100)            |               |      |
| 선생님중<br>원하는<br>상담자  | 담임선생님      | 161(50.5) | 79(51.0)  | 82(50.0)            | 9.772<br>(2)  | .008 |
|                     | 전문상담선생님    | 68(21.3)  | 23(14.8)  | 45(27.4)            |               |      |
|                     | 친한선생님      | 90(28.2)  | 53(34.2)  | 37(22.6)            |               |      |
|                     | 계          | 319(100)  | 155(100)  | 164(100)            |               |      |
| 상담선생<br>님의성별        | 남자         | 65(20.6)  | 23(15.0)  | 42(25.8)            | 5.566<br>(1)  | .018 |
|                     | 여자         | 251(79.4) | 130(85.0) | 121(74.2)           |               |      |
|                     | 계          | 316(100)  | 153(100)  | 163(100)            |               |      |
| 상담시간                | 언제든지       | 56(17.9)  | 33(21.9)  | 23(14.2)            | 12.079<br>(5) | .034 |
|                     | 수업이 끝난후    | 131(41.9) | 58(38.4)  | 73(45.1)            |               |      |
|                     | 쉬는시간       | 40(12.8)  | 14(9.3)   | 26(16.0)            |               |      |
|                     | 점심시간       | 46(14.7)  | 21(13.9)  | 25(15.4)            |               |      |
|                     | 아침자습시간     | 32(10.2)  | 22(14.6)  | 10(6.2)             |               |      |
|                     | 기타         | 8(2.6)    | 3(2.0)    | 5(3.1)              |               |      |
|                     | 계          | 313(100)  | 151(100)  | 162(100)            |               |      |
| 상담형태                | 전화         | 63(19.9)  | 33(21.6)  | 30(18.3)            | 7.066<br>(4)  | .132 |
|                     | 개인(직접)     | 165(52.1) | 84(54.9)  | 81(49.4)            |               |      |
|                     | 편지(이메일)    | 23(7.3)   | 10(6.5)   | 13(7.9)             |               |      |
|                     | 채팅         | 21(6.6)   | 12(7.8)   | 9(5.5)              |               |      |
|                     | 집단상담       | 45(14.2)  | 14(9.2)   | 31(18.9)            |               |      |
| 계                   | 317(100)   | 153(100)  | 164(100)  |                     |               |      |
| 원하는<br>상담<br>선생님    | 공감과 이해     | 197(62.1) | 102(66.2) | 95(58.3)            | 7.588<br>(4)  | .108 |
|                     | 구체적 정보제공   | 57(18.0)  | 30(19.5)  | 27(16.6)            |               |      |
|                     | 적극적 해결     | 44(13.9)  | 13(8.4)   | 31(19.0)            |               |      |
|                     | 조언충고       | 15(4.7)   | 7(4.5)    | 8(4.9)              |               |      |
|                     | 기타         | 4(1.3)    | 2(1.3)    | 2(1.2)              |               |      |
|                     | 계          | 317(100)  | 154(100)  | 163(100)            |               |      |
| 상담<br>선생님의<br>성향    | 재미있는       | 28(9.0)   | 17(11.1)  | 11(6.9)             | 1.932<br>(3)  | .587 |
|                     | 화를 잘 내지 않은 | 20(6.4)   | 9(5.9)    | 11(6.9)             |               |      |
|                     | 이해심과 친절    | 224(71.8) | 109(71.2) | 115(72.3)           |               |      |
|                     | 상담전문지식     | 40(12.8)  | 18(11.8)  | 22(13.8)            |               |      |
|                     | 계          | 312(100)  | 153(100)  | 159(100)            |               |      |
| 상담실<br>필요여부         | 필요하다       | 134(45.0) | 66(44.9)  | 68(45.0)            | 1.274<br>(2)  | .529 |
|                     | 필요없다       | 70(23.5)  | 31(21.1)  | 39(25.8)            |               |      |
|                     | 모르겠다       | 94(31.5)  | 50(34.0)  | 44(29.1)            |               |      |
| 계                   | 298(100)   | 147(100)  | 151(100)  |                     |               |      |

상담형태로는 ‘개인(직접)적으로’를, 원하는 선생님은 ‘문제를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이해해 주는’, 선생님의 성향은 ‘이해심이 많고 친절한 선생님’으로, 상담실의 필요여부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지각하는 상담선생님은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친절한 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음을 터 놓고 지낼 친구같은 선생님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생 개개인의 적극적인 성장발달과 자신의 문제이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라는 상담목적에 비추어 공감과 이해심으로 친절하고 문제를 잘 들어주는 담임(상담)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상담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 스스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학교 상담활동이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고민정도에 따른 상담요구는 가장상담하고 싶은사람, 선생님과 상담할 생각여부, 선생님중 원하는 상담자, 상담선생님의 성별, 상담시간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초등학생이 지각한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

#### 3.3.1 성별에 따른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

초등학생이 지각한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6.544, p<.05). 또한, 대인관계 문제(F=9.922, p<.01)와 성격문제(F=17.002, p<.001)에서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성별에 따른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

[Table 4] Degree of distress or worry about the distinction of sex

| 구 분               | 성별 | N   | M    | SD   | F      | p    |
|-------------------|----|-----|------|------|--------|------|
| 가족문제              | 남  | 246 | 3.53 | 3.98 | .005   | .946 |
|                   | 여  | 230 | 3.56 | 3.80 |        |      |
|                   | 계  | 476 | 3.54 | 3.89 |        |      |
| 학업과 학교<br>부적응 문제  | 남  | 246 | 5.42 | 4.40 | 2.450  | .118 |
|                   | 여  | 230 | 6.05 | 4.42 |        |      |
|                   | 계  | 476 | 5.72 | 4.42 |        |      |
| 대인관계문제            | 남  | 246 | 2.58 | 3.75 | 9.922  | .002 |
|                   | 여  | 230 | 3.70 | 3.93 |        |      |
|                   | 계  | 476 | 3.12 | 3.87 |        |      |
| 성격문제              | 남  | 246 | 3.95 | 4.55 | 17.002 | .000 |
|                   | 여  | 230 | 5.77 | 5.09 |        |      |
|                   | 계  | 476 | 4.83 | 4.89 |        |      |
| 생활습관 태도에<br>관한 문제 | 남  | 246 | 2.04 | 2.13 | .005   | .943 |
|                   | 여  | 230 | 2.03 | 2.13 |        |      |
|                   | 계  | 476 | 2.04 | 2.13 |        |      |
| 전 체               | 남  | 246 | 17.5 | 14.7 | 6.544  | .011 |
|                   | 여  | 230 | 21.1 | 15.8 |        |      |
|                   | 계  | 476 | 19.2 | 15.3 |        |      |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고민이나 걱정수준이 높고, 대인관계 및 성격문제에서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이성문제나 사춘기 과정에서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3.2 학년별에 따른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표 5와 같이, 5학년보다는 6학년이 고민이나 걱정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585, p<.05). 특히, 학업과 학교부적응 문제(F=14.689, p<.001), 대인관계문제(F=7.516, p<.01), 생활습관 태도에 관한 문제(F=6.378, p<.05)에서 6학년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문제 및 성격문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6학년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학업문제에서 높음을 보여준다.

**[표 5]** 학년별에 따른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  
**[Table 5]** Degree of distress or worry about the distinction of grade

| 구분             | 학년 | N   | M    | SD   | F      | p    |
|----------------|----|-----|------|------|--------|------|
| 가족문제           | 5  | 222 | 3.79 | 3.92 | 1.643  | .201 |
|                | 6  | 254 | 3.33 | 3.85 |        |      |
|                | 계  | 476 | 3.54 | 3.89 |        |      |
| 학업과 학교부적응 문제   | 5  | 222 | 4.90 | 4.18 | 14.689 | .000 |
|                | 6  | 254 | 6.44 | 4.50 |        |      |
|                | 계  | 476 | 5.72 | 4.42 |        |      |
| 대인관계문제         | 5  | 222 | 2.60 | 3.02 | 7.516  | .006 |
|                | 6  | 254 | 3.57 | 4.45 |        |      |
|                | 계  | 476 | 3.12 | 3.87 |        |      |
| 성격문제           | 5  | 222 | 4.41 | 4.51 | 2.968  | .086 |
|                | 6  | 254 | 5.19 | 5.19 |        |      |
|                | 계  | 476 | 4.83 | 4.89 |        |      |
| 생활습관 태도에 관한 문제 | 5  | 222 | 1.77 | 2.11 | 6.378  | .012 |
|                | 6  | 254 | 2.27 | 2.13 |        |      |
|                | 계  | 476 | 2.04 | 2.13 |        |      |
| 전체             | 5  | 222 | 17.5 | 13.9 | 5.585  | .019 |
|                | 6  | 254 | 20.8 | 16.3 |        |      |
|                | 계  | 476 | 19.2 | 15.3 |        |      |

**3.3.3 형제별에 따른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

초등학생이 지각한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형제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형제가 없는 학생보다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683, p<.01). 또한, 학업과 학교부적응문제(F=9.520, p<.01)와 성격문제(F=7.748, p<.01), 대인관계문제(F=15.706, p<.001)에서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독자들은 부모와 상호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부모를 모델링하여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형제별에 따른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  
**[Table 6]** Degree of distress or worry about the distinction of brothers

| 구분             | 형제 | N   | M    | SD   | F      | p    |
|----------------|----|-----|------|------|--------|------|
| 가족문제           | 있다 | 426 | 3.61 | 3.92 | 1.029  | .311 |
|                | 없다 | 50  | 3.02 | 3.57 |        |      |
|                | 계  | 476 | 3.54 | 3.89 |        |      |
| 학업과 학교부적응 문제   | 있다 | 426 | 5.94 | 4.50 | 9.520  | .002 |
|                | 없다 | 50  | 3.92 | 3.17 |        |      |
|                | 계  | 476 | 5.72 | 4.42 |        |      |
| 대인관계문제         | 있다 | 426 | 3.36 | 4.01 | 15.706 | .000 |
|                | 없다 | 50  | 1.10 | 1.26 |        |      |
|                | 계  | 476 | 3.12 | 3.87 |        |      |
| 성격문제           | 있다 | 426 | 5.04 | 5.05 | 7.748  | .006 |
|                | 없다 | 50  | 3.02 | 2.75 |        |      |
|                | 계  | 476 | 4.83 | 4.89 |        |      |
| 생활습관 태도에 관한 문제 | 있다 | 426 | 2.02 | 2.15 | .388   | .534 |
|                | 없다 | 50  | 2.22 | 2.00 |        |      |
|                | 계  | 476 | 2.04 | 2.13 |        |      |
| 전체             | 있다 | 426 | 19.9 | 15.7 | 8.683  | .003 |
|                | 없다 | 50  | 13.2 | 9.10 |        |      |
|                | 계  | 476 | 19.2 | 15.3 |        |      |

**3.3.4 부모관계별에 따른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

**[표 7]** 부모관계별에 따른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  
**[Table 7]** Degree of distress or worry about the distinction of parents

| 구분             | 부모관계 | N   | M    | SD   | F     | p    |
|----------------|------|-----|------|------|-------|------|
| 가족문제           | 부모모두 | 445 | 3.46 | 3.78 | 4.355 | .013 |
|                | 아버지만 | 17  | 6.23 | 5.94 |       |      |
|                | 어머니만 | 14  | 3.00 | 3.25 |       |      |
|                | 계    | 476 | 3.54 | 3.89 |       |      |
| 학업과 학교부적응 문제   | 부모모두 | 445 | 5.63 | 4.35 | 4.492 | .012 |
|                | 아버지만 | 17  | 8.82 | 5.86 |       |      |
|                | 어머니만 | 14  | 5.07 | 3.19 |       |      |
|                | 계    | 476 | 5.72 | 4.42 |       |      |
| 대인관계문제         | 부모모두 | 445 | 3.07 | 3.81 | 1.929 | .146 |
|                | 아버지만 | 17  | 4.88 | 5.37 |       |      |
|                | 어머니만 | 14  | 2.57 | 3.77 |       |      |
|                | 계    | 476 | 3.12 | 3.87 |       |      |
| 성격문제           | 부모모두 | 445 | 4.66 | 4.63 | 4.573 | .011 |
|                | 아버지만 | 17  | 7.94 | 8.41 |       |      |
|                | 어머니만 | 14  | 6.50 | 6.39 |       |      |
|                | 계    | 476 | 4.83 | 4.89 |       |      |
| 생활습관 태도에 관한 문제 | 부모모두 | 445 | 1.99 | 2.04 | 7.783 | .000 |
|                | 아버지만 | 17  | 4.00 | 3.25 |       |      |
|                | 어머니만 | 14  | 1.14 | 2.03 |       |      |
|                | 계    | 476 | 2.04 | 2.13 |       |      |
| 전체             | 부모모두 | 445 | 18.8 | 14.5 | 6.092 | .002 |
|                | 아버지만 | 17  | 31.8 | 26.0 |       |      |
|                | 어머니만 | 14  | 18.2 | 16.2 |       |      |
|                | 계    | 476 | 19.2 | 15.3 |       |      |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부모관계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표 7과 같이, ‘아버지만 계시는’ 학생이 고민이나 걱정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092, p<.01).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문제(F=14.355, p<.05), 학업과 학교부적응문제(F=4.492, p<.05), 성격문제(F=4.573, p<.05), 생활습관 태도에 관한 문제(F=7.783, p<.001)에

서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아버지만 계시는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과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특히 초등학교들에게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3.3.5 성적수준별에 따른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

초등학생이 지각한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성적수준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보다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고민이나 걱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6.700, p<.001). 이는, 가족문제와 학업과 학교부적응문제 및 성격문제(p<.001), 대인관계문제와 생활습관 태도문제(p<.01)등 모든 문제에서 성적수준의 하위권학생이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학생의 성적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8] 성적수준별에 따른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  
**[Table 8] Degree of distress or worry about the distinction of level test at school**

| 구분             | 성적  | N   | M    | SD   | F      | p    |
|----------------|-----|-----|------|------|--------|------|
| 가족문제           | 상위권 | 148 | 3.10 | 3.39 | 14.059 | .000 |
|                | 중위권 | 282 | 3.32 | 3.57 |        |      |
|                | 하위권 | 46  | 6.34 | 5.78 |        |      |
|                | 계   | 476 | 3.54 | 3.89 |        |      |
| 학업과 학교 부적응 문제  | 상위권 | 148 | 4.32 | 3.83 | 21.081 | .000 |
|                | 중위권 | 282 | 5.95 | 4.13 |        |      |
|                | 하위권 | 46  | 8.86 | 5.90 |        |      |
|                | 계   | 476 | 5.72 | 4.42 |        |      |
| 대인관계문제         | 상위권 | 148 | 2.75 | 3.41 | 6.589  | .002 |
|                | 중위권 | 282 | 3.01 | 3.71 |        |      |
|                | 하위권 | 46  | 5.04 | 5.50 |        |      |
|                | 계   | 476 | 3.12 | 3.87 |        |      |
| 성격문제           | 상위권 | 148 | 4.58 | 4.59 | 9.005  | .000 |
|                | 중위권 | 282 | 4.49 | 4.57 |        |      |
|                | 하위권 | 46  | 7.69 | 6.67 |        |      |
|                | 계   | 476 | 4.83 | 4.89 |        |      |
| 생활습관 태도에 관한 문제 | 상위권 | 148 | 1.86 | 1.85 | 5.135  | .006 |
|                | 중위권 | 282 | 1.98 | 2.10 |        |      |
|                | 하위권 | 46  | 2.97 | 2.85 |        |      |
|                | 계   | 476 | 2.04 | 2.13 |        |      |
| 전체             | 상위권 | 148 | 16.6 | 13.6 | 16.700 | .000 |
|                | 중위권 | 282 | 18.7 | 14.0 |        |      |
|                | 하위권 | 46  | 30.9 | 21.9 |        |      |
|                | 계   | 476 | 19.2 | 15.3 |        |      |

**3.4 고민이나 걱정 정도의 관계**

표 9와 같이, 초등학생이 지각한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가족문제(r=.730), 학업과 학교부적응문제(r=.820), 대인관계문제(r=.804), 성격문제(r=.879), 생활습관 태도문제(r=.675)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들의 고민이나 걱정의 문제가 각 영역별

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고민이나 걱정 정도의 관계**  
**[Table 9] Degree of distress or worry about correlation**

| 구분 | ① 가족문제               | ② 학업과학교 부적응문제        | ③ 대인관계 문제            | ④ 성격문제               | ⑤ 생활습관태도문제           |
|----|----------------------|----------------------|----------------------|----------------------|----------------------|
| ②  | .486 <sup>(**)</sup> |                      |                      |                      |                      |
| ③  | .426 <sup>(**)</sup> | .578 <sup>(**)</sup> |                      |                      |                      |
| ④  | .522 <sup>(**)</sup> | .625 <sup>(**)</sup> | .666 <sup>(**)</sup> |                      |                      |
| ⑤  | .439 <sup>(**)</sup> | .450 <sup>(**)</sup> | .453 <sup>(**)</sup> | .564 <sup>(**)</sup> |                      |
| 전체 | .730 <sup>(**)</sup> | .820 <sup>(**)</sup> | .804 <sup>(**)</sup> | .879 <sup>(**)</sup> | .675 <sup>(**)</sup> |

\*\* <.01 (N=476)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고민정도에 따른 학교상담 현황과 학교상담에 대한 요구정도, 관련 변인별로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상담안내, 상담경험 및 상담교사와 상담실이 부족하며, 담임교사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생님으로부터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면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안내와 선생님과 상담경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9-21] 이는 학교상담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수업시수와 업무과다로 인한 상담시간 부족 등을 보고하고 있다[1,4,6-12]. 이에, 학교 상담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와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합리적인 행정재적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함을 강조한다[1,12,22,23].

또한, 상담을 하게 된 동기에서는 ‘선생님 부르셔서’가, 상담내용으로는 ‘나쁜 행동’, 상담의 도움정도에서 ‘많이 도움’, 상담선생님의 유무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7.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학생과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16,23-26]. 또한, 상담선생님 및 상담실의 필요성 요구와 인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상담활동을 홍보하고, 학생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연구들[1,7,8,19,26,27]을 지지해준다.

둘째, 수업이 끝난 후를 이용해 개인상담을 원하며, 자신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여자담임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상담을 원하는 선

생님은 ‘담임선생님’이며, 성별로는 ‘여자’선생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14,19,20,28,29]. 특히, 상담형태로는 ‘개인(직접)적으로’, 일대일 상담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들[7,14,19,21,28,30,31]을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원하는 선생님은 ‘문제를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이해해 주는’, 선생님의 성향은 ‘이해심이 많고 친절한 선생님’의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14,19,28,31,32]들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고민이나 걱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학생의 요구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학부모, 교사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상담요구 수준에 따른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개발 시급[11,25]과 높이에 맞추어 상담활동이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어야 한다[23,33]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초등학생들은 고민이나 걱정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5학년보다는 6학년이, 형제가 있는 학생이, 아버지만 계시는 학생이, 성적수준 하위권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이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문제와 성격문제에서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격과 개인문제에서 여학생들은 외모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연구[14,15,32,34,35] 결과에서 여학생이 고민이 높게 나타났듯이, 여학생들은 사춘기를 맞이하는 시기로서 집단 활동에서 또래집단과 상호소통 하는데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은 5학년보다는 6학년이 고민이나 걱정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과 학교부적응 문제, 대인관계문제, 생활습관 태도에 관한 문제에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 학교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17], 고학년일수록 고민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15,16,28,32]와 일치한다.

형제별을 보면, 형제가 있는 학생이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업과 학교부적응문제와 성격문제 및 대인관계문제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독자는 부모의 모델링을 통하여 형제가 있는 자기 또래보다 더욱 어른스럽고 지나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적으며 질투심이 적다[36]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모관계별을 살펴보면, 아버지만 계시는 학생이 고민이나 걱정을 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문제, 학업과 학교부적응문제, 성격문제, 생활습관 태도에 관한 문제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

성적수준별에서는 하위권이라고 지각한 학생이 고민이나 걱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문제

와 학업과 학교부적응문제 및 성격문제, 대인관계문제와 생활습관 태도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성적수준의 하위권학생이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민문제가 하위권 학생들의 고민수준이 높다는 연구[19]와 일치한다.

넷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고민이나 걱정의 정도가 가족문제, 학업과 학교부적응문제, 대인관계문제, 성격문제, 생활습관 태도문제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들의 고민이나 걱정의 문제가 각 영역별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의 표집은 전라북도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초등학생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표집인원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신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담임선생님을 선호함으로 실제적인 학교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체제 및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체계관리 및 다양한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 등을 활용하여 학교상담활동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Lee, P. H., “Study on teachers' perception of counseling activities and school counseling in elementary scho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6.
- [2] Asher, S. R.,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the schools”. *Mediation Quarterly*, 8, pp 51-62, 1990.
- [3] Kim, J. Y., “The Effects of Peer Conflict- Resolving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6.
- [4] Lee, E. J., “An Analysis of Actual Counseling Status in Elementary Schools and the Requirement of Teachers and Children for the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5] Huh, S. H., Recent Trend of Research on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in U.S.A.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5(2), pp. 515-532, 2002.

- [6] Kim, S. H., "A Study of Elementary Teachers' Awareness about School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7] Lee, H. S., "A study on the state of and demand for the counseling in elementary school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8] Ma, H. S., "A More Energetic Counselor Role Performance by Elementary School Teache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9] Sin, S. M., "A Study of Elementary Teachers' Counseling Activiti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je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10] Seo, B. J., "A study on the school counselling in high school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j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11] Choi, J. W., "A Study of Behavioral Problem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Recognize the Research on School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2] Kim, H. K., "A Study on Counseling Activity Consciousness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eo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13] Cho, Y. S., "An Analysis of Actual Counseling Status and Children's Need For Counseling at Elementary School in Kyonggi Provinc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 [14] Kim, M. A., "An Analysis of the Actual State and the Need of the Counseling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Jeonbuk Provinc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4.
- [15] Lee, G. H.,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Services and Needs for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je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16] Kwon, K. N.,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Services and Needs for Counseling -the case of elementary schools in Seou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5.
- [17] Cho, S. M.,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ounseling and the Analysis of Expectation in Elementary Scho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18] Kim, J. S., & Kang, J. K., Classification Problem, the Type of Youth Development Research,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000.
- [19] Jeong, M. Y.,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unseling Services and Needs for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20] Lee, K. M., "An Analysis of the Actual state and Need of the Counseling in Elementary Scho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21] Yeom, A. S., "Counseling Status and Need Analysis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22] Her, M. Y., "An Analysis of the Actual State and the Need of Counseling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in KyungNam Are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23] Choi, M. C., "A study on Counseling Services and Needs for Counseling in Elementary School in Chungcheongnam-d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24] Kim, K. B., "A Study on the Health office Frequently Used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unseling Services and Needs for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25] Kim, H. J., "A Study on Elementary Students' Parents' Perception of the Educational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for by School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26] Moon, H. J., "A Study on Teachers and Student's Needs for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and Activation Pla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9.
- [27] Choi, H. S., "A Study on the School Counseling Consciousnes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wand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28] Kim, M. O., "A Survey on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tudents' Needs for Counseling and their Perceptions of Counseling Servic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2.
- [29] Hwang, K. S., "A Research on the Actual Counseling and it's Needs in Elementary Scho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my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30] Kim, S. R., "A Survey on 5th and 6th Grade



- Elementary Students' Needs for Counseling and their Perceptions of Counseling Servic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6.
- [31] Jeong, U. J., “A Research on the Actual Counseling and it's Needs in Elementary Scho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32] Kim, E. J., “Analysis of Counseling and Need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33] Jeong, C. G., “Present State of Primary School Counseling and Teachers' Perceptions on Counseling in Kyungsangnam-d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4.
- [34] Kwak, J. Y., “The Relationships among Body-Esteem, Self-Esteem and Depression According to Elementary School Children's Weigh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 [35] Na, K. J., “A Study on the Anxiety and Response of th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of City and Rural Area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36] Sung, Y. H., & Yun, S. H., & Lee, K. H., Parent Education, Seoul: Moonumsa Press, 1994.

---

김 영 태(Young-Tae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  
과(문학사)
- 1995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  
과(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  
과(교육학박사)

<관심분야>

교육과정, 교육심리